

Ⅲ. 고시텔

1. 일반사항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2008년 7월 25일 01시 25분 경
- 발화장소: 지상10층 건물 중 9층 고시텔
- 재산피해: 119,000천원
- 인명피해: 18명(사망7명, 부상11명)
- 발화원인: 전기누전(소방방재청 2008년 재난연감). 방화로 추정하였으나 국과수 조사 후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내림.

2. 건물현황

불이 난 고시텔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7,451.90 m²) 상가 건물의 9층(층 면적 559.9 m²)에 있었다. 내부구조는 면적이 6.6 m²가 채 안 되는 68개의 칸막이로 구획된 실들이 9층 전체를 별집형으로 채워져있고, 통로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걸을 때 비스듬히 비쳐지나가야 하는 구조였다. 계단실은 북측과 남측에 1개씩 2개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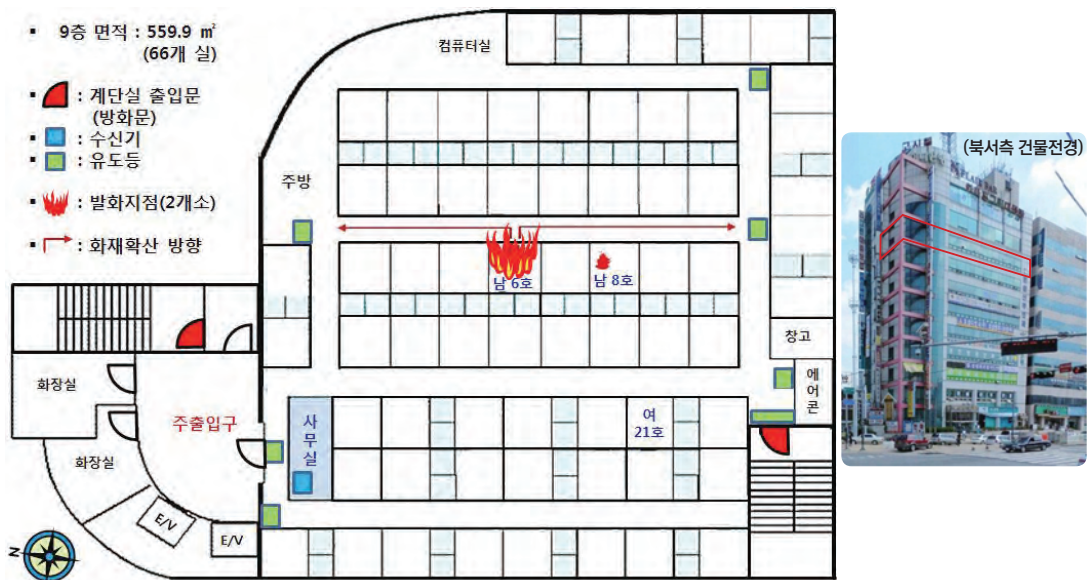


그림 1. 지상9층 고시텔 평면 및 화재상황

3. 화재상황 및 원인

고시텔 21호실에서 잠을 자던 관리자(여)가 비상벨 소리에 깨어 나와보니 비닐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6호실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의 치솟았고 급격히 천정 상층부로 화재가 확대되면서 유독성의 짙은 연기가 확산되었다.



사진 1. 발화추정 6호실 내부



사진 2. 6호실 앞 통로

고시텔 내부 552.9㎡ 중 약 150㎡가 소실되고 기타 연기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2분만인 오전 2시 7분에 진화되었다.



사진 3. 8호실 연소형태



사진 4. 통로 연소 및 농연 확산 (주출입구방향에서 봄)

현장조사 결과 8호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연소 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소화된 소실흔이 관찰되었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남자 6호실 내부가 전소되면서 통로 천정으로 출화된 형상이 관찰되었다. 6호, 8호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2지점 이상의 발화점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신원 미상자가 미상의 점화원을

사용하여 6, 8호실 내부 침구류 등 가연물질에 불을 붙여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방화로 추정되었다. 최종감정 후 6호실 냉장고 및 TV전원코드의 절연손상에 의한 전기합선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4. 피해상황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6호실과 8호실은 고시텔의 중간 지점이며, 사망자들은 6호실과 10m 정도 떨어진 고시텔 안쪽 복도와 방안에서 대부분 질식사했다. 빈방이었던 6호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만으로 순식간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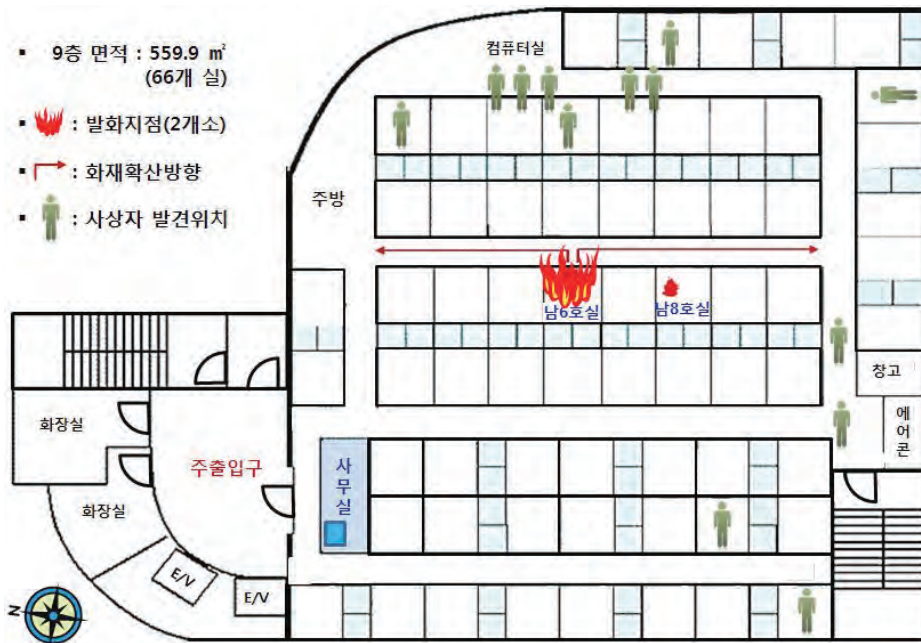


그림 2. 지상 9층 고시텔 화재 및 인명피해 상황

6호실은 1인용 침대와 책상, 옷가지가 모두 탔고 석고보드 재질에 벽지를 붙인 벽면과 천장도 소실됐다. 8호실은 침대 일부만 불에 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호실은 목재 재질의 문이 개방된 채 문도 모두 탄 상태였지만 바로 옆 7호실과 다른 방들은 전혀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재산피해(소방서 추산) 금액은 119,000천원이었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원인

적은 연소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관리인 및 투숙객의 초기 화재대처 능력이 저조하였고, 건물 구조상 화재 시 발생한 농연의 배출이 불가능하여 화재 발생 수분 내로 질식에 의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1)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가진 많은 개별실로 구획되어 화재 인지가 늦었다.
- (2) 심야시간(01시 25분)으로 수면 중인 사람들은 화재인지가 더욱 지연되었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흡입, 복잡한 미로형태의 평면구조로 인해 신속히 피난을 하지 못했다.
- (3) 관리인은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소방서로의 신고가 지연되었다.
- (4) 6호실 침대, 매트리스 등의 연소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였다.
- (5) 외부 창을 석고보드로 막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었다.